5·18때 피흘리며 공수부대원에 끌려가는 젊은이

28년만에 찾았다

광주 산수동 최양민씨 "피 닦는 여성은 동생"

1980년 5월 18일 오후 광주시 동구 금남로 가톨릭센터 인근에서 최씨 남매가 공수부대원에게 맞아 피를 흘린채 끌려가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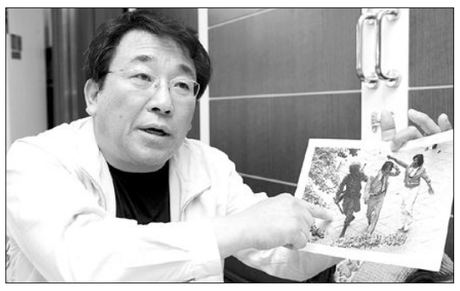
5·18 광주민중항쟁을 상징하는 빛바랜 사진 한장이 있다. 양복을 입은 한 젊은이가 공수부대원에게 피를 흘리며 끌려가고 젊은 여성이 피를 닦아주는 모습을 담은 사진이다. 이 사진은 '신혼부부'라는 이름으로 명명됐으며, 28년이 지난 지금까지 공수부대의 가혹한 진압을 대변하고 있다.

이 사진 속의 젊은 남성은 최양민(54·부동산 임대업·광주시 동구 산수동)씨로 밝혀졌다. 그가 밝힌 28년전 상황은 이렇다.

당시 26살 청년인 최씨는 목포에서 결혼식(5월 10일)을 올린 뒤 16일 신혼여행을 마치고 처가가 있는 광주에 머물고 있었다. 다음날인 17일 양가 친인척 만남이 있었고, 최씨 부부는 금남로 가톨릭센터 인근 미도장 여관에 숙소를 마련했다. 여동생 양미(당시 24세·1996년 목포에서 열차사고로 사망)씨도 목포에서 올라왔다.

18일 오후 2시께 여관에서 쉬고 있던 그는 "계엄을 해제하라", "시민들을 때리지 말라"는 구호 소리를 듣고 숙소 밖으로 뛰쳐나왔다. 이미 광주시가는 아수라장이었다. 최씨는 시민들이 보도 블럭을 깨서 나르는 것을 보고 함께 참여했다. 그 순간이었다. 공수부대원 4명이 갑자기 달려들면서 곤봉을 휘둘렀다. 최씨의 얼굴은 온통 피범벅이 됐다. 비명소리를 듣고 황급히 나온 여동생 양미씨도 공수부대원에게 두들겨 맞아 왼쪽 눈부위를 다쳤다.

"내 머리에서 피가 흐르는 것을 보고 다친 여동생이 손수건으로 피를 닦아 주더라고요. 당시 27바늘을 꿰맸는데, 지금도 그 흉터가 남아 있어요."



최양민씨가 7일 당시 사진을 보며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

이 모습은 당시 사진기자의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다. 당초 부부로 알려진 두 사람은 사실 남매지간이었다. 31사단으로 연행된 최씨는 친구의 도움으로 석방됐다. "지금도 TV에서 5·18 장면이 나오면 울렁증이 생겨 꺼버려요. 최근엔 병원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진단까지 받았어요."

그가 사진의 존재를 알게된 것은 최근 5·18 묘지에 들르면서였다. 지난 1월 12일 5·18 민주묘지 안에 있는 사진전시실을 찾았다가 자신의 옛 모습을 발견하게 됐다. 사진 전시실에도 '신혼부부'라는 이름으로 설명되어 있었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5·18 빛바랜 사진 속 주인공들

'5월의 꼬마' 조천호씨
'태극기 청년' 박대현씨
'주먹밥 아줌마'는
강삼자·하문순씨

1980년 5·18 당시 카메라에 찍힌 빛 바랜 사진 속 주인공들의 신원이 하나둘 밝혀지고 있다.

80년 5월 21일 금남로 시위에 나섰다가 총탄에 맞아 숨진 조사천(당시 34세)씨의 장남인 조천호씨. 당시 5살인 그는 아버지의 영정을 들고 있다 외신기자의 카메라에 잡혀 세계인의 심금을 울렸다. 사람들은 그를 '5월의 꼬마'라고 불렀다. 그는 1998년 광주시립 망월묘지 관리인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가 지금은 광주시청에서 근무 중이다.

공수부대원과의 금남로 대치 때 버스 지붕에 올라 오케스트라 지휘자처럼 태극기를 흔들었던 '태극기 청년' 박대현(55·남구 주월동)씨. 그는 한국도로공사 장성영업소에서 근무하고 있다. 당시 28살로 대학을 중퇴하고 일자리를 찾던 그는 5월 20일 동구 대인동 버스터미널에서 공수부대에 맞은 뒤 울분을 참지 못하고 시위대에 합류, 태극기를 흔들며 시위대를 이끌었다.

대인시장의 어수선한 좁은 골목길에서 허리를 숙여 주먹밥을 짓던 강삼자(여·68)씨와 오른 손에 밥주걱을 들고 잠시 숨을 돌리고 있었던 하문순(여·60)씨. 주먹밥을 만들던 두 여인의 사진은 군부의 총칼에 맞선 '하나 된 광주'를 상징했다.

강씨는 여전히 시장통에서 '대인야채'라는 상호의 채소가게를 한다. 하씨는 리어카를 끌고 다니며 과일장사를 하고 있다. 포상이나 보상은 없었다. 하지만 "그때 주먹밥을 받아갔던 학생들이 이따금 시장을 찾아 올 때면 행복하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미 쇠고기 반대 집회 참여 못하게

학생 생활지도 적극 나선다

교과부, 시·도교육감 회의

교육과학기술부는 7일 전국 16개 시·도교육감을 긴급 소집,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집회 학생 참여 등 교육 현안에 대해 대책회의를 가졌다.

교과부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교육감들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와 관련한 문제는 잘못 알려진 사실에 대해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이 대중집회에 참여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뜻을 모으고, 적극적인 생활지도를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어제 여의도 집회 참가 인원이 많았는데, 전교조 강세지역인 동작·금천·구로구에 인접해 있기 때문"이라며 집회 배후세력 중 하나가 전교조인 듯한 발언을 해 파문이 예상된다. 그는 "뒤에서 종용하는 세력이 많아 학생 지도에 어려움이 있다. 집회 참가 권유 문자메시지가 전국적으로 뿌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역교육청 폐지 후 지역교육지원센터 전환 추진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교육감들이 "지역교육청을 폐지한다는 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철저히 방어할 것이다"며 "교육지원센터로 전환하는 방안이 이뤄지지 않도록 최대한 막겠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대해 김도연 교과부 장관은 "지역교육청을 지자체화하려 한다는 불필요한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교육청 산하기관으로 존속시킬 것이며 다만 좀더 실질적인 지원기관으로 개편하자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상필기자 camus@·연합뉴스

'인터넷 괴담' 악의적 유포 엄단

검찰, 사회혼란 야기 사범 규정

검찰은 광우병, 독도 등 '5대 인터넷 괴담'을 악의적·조직적으로 유포할 경우 국가정책에 대한 불신과 사회혼란을 야기하는 사범으로 규정해 엄정히 수사키로 했다.

대검찰청은 7일 대회의실에서 임채진 총장 주재로 일선 청 강력전담 또는 마약조직범죄 부장검사 30여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민생침해 사범 전담부장검사 회의'를 개최했다.

임 총장은 "국민이 출처도 불명한 괴담에 혼란을 겪거나, 국가 미래가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유언비어에 발목 잡히는 일이 없도록 사이버폭력 척결에 검찰역량을 집중해 서로 믿을 수 있는 신뢰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검찰은 인터넷 괴담이 네티즌들의 단순한 유포가 아니라 악의적, 조직적으로 허위사실을 생산·유포하는 행위라면 국가정책에 대한 불신과 사회혼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검찰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검찰이 괴담이나 휴교소문을 퍼뜨리는 문자메시지의 경우 외국통신망을 거친 경우가 아니라면 유포자를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의 이러한 수사의지를 밝히자 시민단체와 네티즌 등은 정부정책 등과 관련한 인터넷상 유언비어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대대적인 수사가 매우 이례적이라는 점을 들어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 수사대상 및 사법처리 여부에 대한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역교육청 폐지 중단을"

광주교육청 공무원노조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 중인 지역교육청의 '지역교육지원센터'로 전환 계획과 관련, 광주시교육청 공무원노조가 7일 성명서를 내고 "지역교육청 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정부와 여당은 학교자율화를 앞세워 일부 교수들의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지역교육청을 없애는 교육자치법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며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어 "지금까지 교육자치의 교두보 역할을 해온 지역교육청의 기능을 왜곡·폄훼하고 있다"며 "또한 현재 거론되는 법안은 지역교육청과 주민은 물론 교육주체의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은 졸속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정상필기자 cam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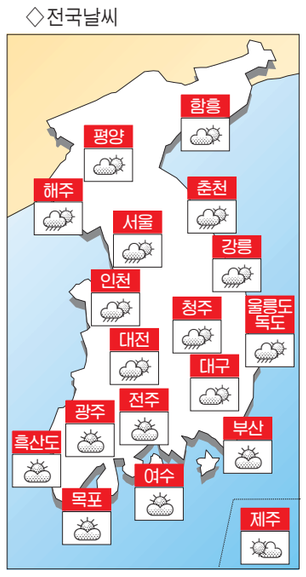
구름 낀 어버이날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며 구름이 많겠다.

5월 8일 (음 4월 4일) 날씨

◇전국날씨

광 주	구름 많음	13~26℃
목 포	구름 많음	13~22℃
여 수	구름 많음	16~20℃
완 도	구름 많음	12~22℃
구 례	구름 많음	10~29℃
해 남	구름 많음	11~23℃
장 흥	구름 많음	11~24℃
고 흥	구름 많음	11~22℃
순 천	구름 많음	10~27℃
영 광	구름 많음	10~23℃
진 도	구름 많음	11~23℃
전 주	구름 많음	12~26℃
남 원	구름 많음	10~27℃
흑산도	구름 많음	10~17℃



서해남부
앞바다=북동~남동풍 파고 0.5~1.0m
먼바다=북동~남동풍 파고 0.5~1.5m
남해서부
앞바다=북동~남동풍 파고 0.5~1.5m
먼바다=북동~남동풍 파고 1.0~2.0m

목 포 밀물 〈 04:10 16:50 썰물 〈 09:18 21:18
여 수 밀물 〈 10:48 23:35 썰물 〈 04:51 16:53

▲해뜸 05:34 ▲해짐 19:24 ▲달뜸 07:27 ▲달짐 22:58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9(금)	10(토)	11(일)	12(월)	13(화)	14(수)
날 씨						
최저/최고	15/22	12/21	10/23	10/21	11/21	10/22

미국산 쇠고기 한우 둔갑 판매

광주식약청 적발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따른 대책으로 '원산지 표시 강화' 방침을 밝힌 가운데 광주지역의 유명음식점이 미국산 쇠고기를 한우로 속여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식약청과 관할 구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과 합동으로 원산지표시 위반 음식점 단속을 벌인 결과 광주시 서구 상무지구의 대형음식점인 H식당이 미국산 쇠고기를 한우로 속여 판매해오다 적발됐다.

H 음식점은 지난해 3월 냉동상태로 들여온 미국산 쇠고기를 한우 갈빗살에 덧붙여 양념한 뒤 이를 소비자들에게 한우갈비로 속여 최근 보름동안 480kg 가량을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일부 갈비는 한우 갈빗살 자체를 사용하지 않고, 호주산 갈빗살에 미국산 쇠고기를 덧붙여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성인 절반 안경 쓴다

국내 성인의 절반 가량이 안경을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안경사협회와 한국갤럽조사연구소는 전국 18세 이상 남녀 1천502명을 대상으로 '성인 안경 사용률'을 면접 조사한 결과 안경 사용률(콘택트렌즈 겸용 포함)이 47%, 콘택트렌즈 사용률(안경겸용 포함)이 7.3%로 각각 집계됐다고 7일 밝혔다.

안경사용률은 1987년 24.1%에서 95년 34.8%, 2002년 44.2%, 2008년 47.0%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협회측은 분석했다.

안경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시력을 측정하는 곳은 '안경원 안경사'라고 응답한 비율이 74.2%로 안과 등의 병원에서 안과의사로부터 시력검사를 받았다는 응답자(22.9%)보다 훨씬 많았다.

/연합뉴스